

모든  
학생이  
행복한  
미래

모든  
교사가  
행복한  
수업

# #수업태그

## SPECIAL

군자중학교 연구학교 2.0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다

## FEATURE

너도 나도 함께 성장하는 시간, GROW UP

## 수업 INSIDE

미래사회의 주인공을 꿈꾸는 수업, 맛있는 군만두수업

## TALKS

#수업태그, 수업에 대한 철학을 세워가다

## 수업 人

일정교사의 수업개선 고군분투기

## 교사동아리

우리학교 교사동아리를 소개합니다

## CULTURE

팬보걸즈, 피의연대기, 회복탄력성, 나의 첫 젠더수업



사진설명 군자중학교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선생님들의 수업잡지 창간을 축하하며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역량기반수업연구회(#수업태그)



모든  
학생이  
행복한  
미래

모든  
교사가  
행복한  
수업

# #수업태그

## SPECIAL

군자중학교 연구학교 2.0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다

## FEATURE

너도 나도 함께 성장하는 시간, GROW UP

## 수업 INSIDE

미래사회의 주인공을 꿈꾸는 수업, 맛있는 군만두수업

## TALKS

#수업태그, 수업에 대한 철학을 세워가다

## 수업 人

일정교사의 수업개선 고군분투기

## 교사동아리

우리학교 교사동아리를 소개합니다

## CULTURE

팬보걸즈, 피의연대기, 회복탄력성, 나의 첫 젠더수업



사진설명 군자중학교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선생님들의 수업잡지 창간을 축하하며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역량기반수업연구회(#수업태그)

# C O N T E N T S

2018 APRIL VOL.01



3

## SPECIAL

군자중학교 연구학교 2.0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다

5

## FEATURE

“GROW UP” 연극으로 키워내는 역량교육

9

## 수업 INSIDE

맛있는 군만두 수업을 소개합니다 (1)

14

## TALKS

#수업태그, 수업에 대한 철학을 세워가다

17

## 수업人

일정교사의 수업개선 고군분투기

18

우리학교 교직원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군자중 교직원동아리, 이곳에 주목하라

19

## CULTURE

회복탄력성, 나의 첫 젠더 수업, 땀뽀걸즈, 피의 연대기





2015 개정교육과정의 슬로건은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각종 홍보영상과 자료 맨 위에는 언제나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이란 카피가 눈에 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하는 엄청난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교육과정이기때, 결국 미래교육은 배움을 즐기는 아이들을 주체로 모두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셈이 된다.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포문으로 교육부는 교육과정에서 가장 처음으로 '역량'을 도입하였다. 이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키워, 미래에 기계적인 암기로 인해 고민없이 인출되지만 했던 지식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를 거쳐 모든 맥락과 상황에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필요성이라는 시대적 요구 탓이라.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군자중학교는 교과역량 함양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작년부터 연구학교를 시행하고 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목표와 맥을 같이 하며, 본교의 주제 역시 <교과역량 함양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 실현>으로 정하고, 연구학교의 뜻을 올렸다. 이제 연구학교의 2년차, 교과역량 정책연구학교로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선도학교로서 우리는 어떤 고민과 실천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할 것인가.

본교는 교과역량 편성 운영에 관한 거창한 인식보다는, 우리가 현재 학교에서 차근차근 실천할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했다.

## “역량은 경험의 총량” “우리는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연구학교 2년차로서 우리는 2월부터 토의를 하며, 고민했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에게 역량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학생 개개인의 역량은 모든 교육의 결과가 그러하듯 눈으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배움은 결국 스며들어가는 것이며, 다양한 개개인의 경험과 함께 만나 재구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2년 안에 아이들에게 가시적인 역량에 관한 성과를 내겠다라는 거창한 야심보다는 꾸준히 매 시간 수업을 알차게 수행하는 것, 그리고 모든 교육과정에 학생들이 역량을 함양하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2년차 역시 준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가.



활동주심수업에 관한 끊임없는 요청은 결국 이러한 상황과 맞닿아 있다. 그리하여 본교는 결국 수업의 개선만이 답이란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업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 “수채화공동체를 통해 형식적인 전문적학습공동체 탈피하기 위한 노력 중”

그렇다면, 어떻게 수업개선을 실현할 것인가. 먼저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개편했다. 수채화공동체란 이름으로 수업채움과 수업담화 2가지 파트로 나누어 공동연구와 공동실천 그리고 연구과제 공유에 중점을 두어 단순한 역량강화를 위한 강사 초빙형의 직무연수가 아닌 실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서로 수업을 열어 서로의 수업을 나누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시간들로 마련했다.

수업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교사공동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어야 한다는데 모두 합의하였다. 혼자서는 빨리가지만, 함께하면 더 멀리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 “사군자교육과정으로 역량기반교육과정을 만든다”

또한 사군자교육과정으로 본교의 이름을 따서 만든 프로그램은 매화처럼 꽃피우는 학생중심수업, 난초처럼 향기내는 개인별 맞춤형 학생학력관리, 국화처럼 굳건하게 일체화된 수업과정 운영, 대나무처럼 유지하기 위한 역량 함양 진로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평소 학교 교육과정 속에 있던 프로그램을 역량에 기반하여 재정비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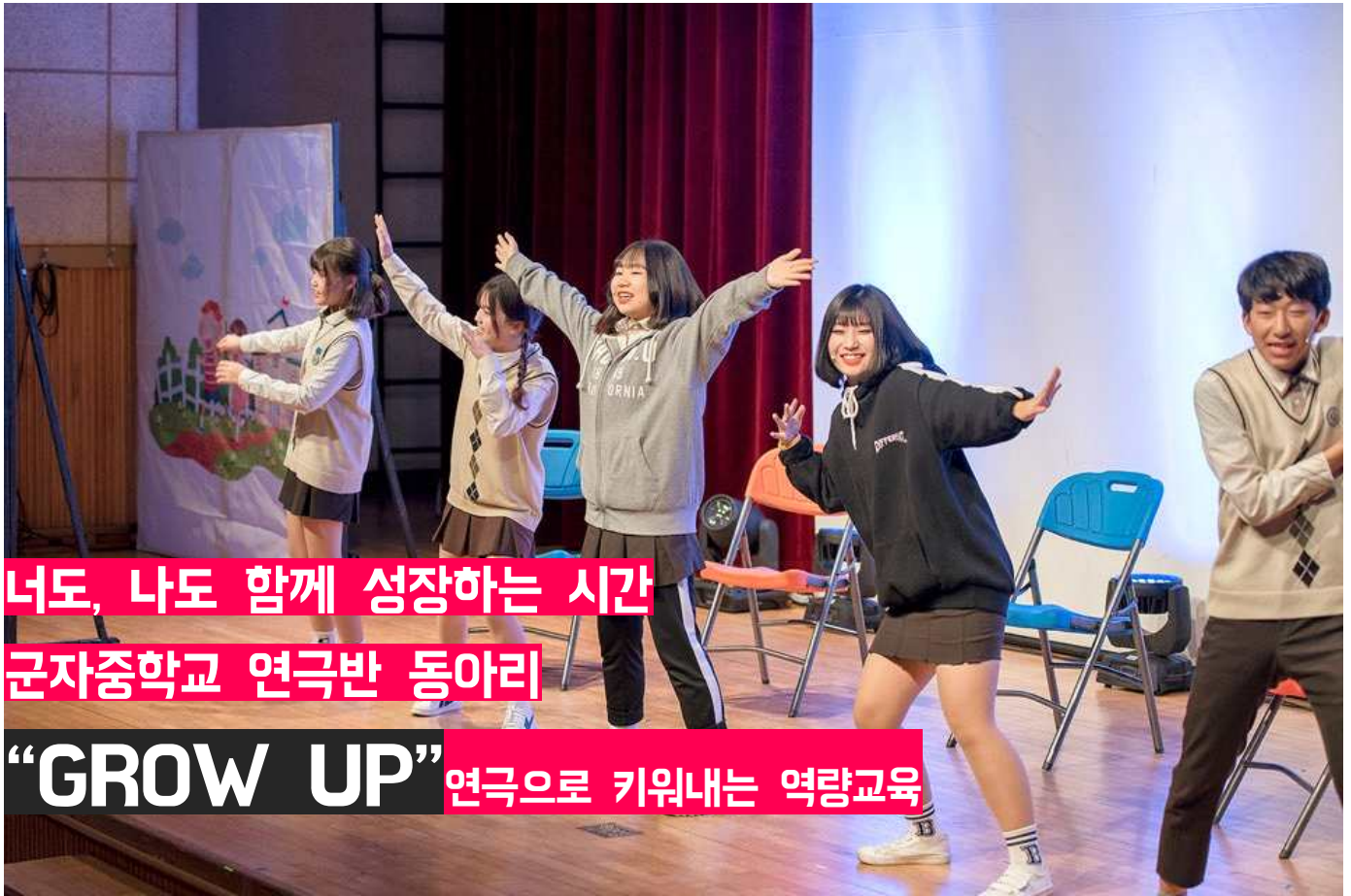


결론은 수업이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의한 우리는 결국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러한 행복을 개개인이 누리기 위한 각자의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수업만이 희망이며, 수업만이 학생들의 역량을 신장시키고, 수업만이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수업만이 우리의 공동체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결론내었다.

우리는 각자 수업성찰일지를 에세이형식으로 작성하기로 하고,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수업을 나누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기로 했다. 우리는 모두 각 교과를 통해 교사가 먼저 역량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수업을 준비하고, 디자인한다. 그리고 묻는다. “샘! 제 수업디자인 어떤 것 같아요? 한 번 봐주세요.” 함께하는 수업연구만이 우리를 더욱 힘차게 도약하도록 한다.

글 | 이정은(혁신교육부)





너도, 나도 함께 성장하는 시간

군자중학교 연극반 동아리

“GROW UP” 연극으로 키워내는 역량교육

###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간”

길지 않은 내 인생을 돌아보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1년 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겠다. 공부하느라 허리디스크까지 심하게 얻어 앓아있을 수가 없어서 서서 11시간씩 공부하곤 했던 그 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해봤다. 그때 나를 지탱해주던 것이 있었다. 남자친구도, 가족도 아닌 ‘뮤지컬’이었다. 사실 임고생 치고는 너무 과분한(?) 피난처였다. 비싸기도 엄



청 비쌀 뿐더러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려면 최소 한 시간 반 정도거리를 나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담도 있었다. 그래도 나는 그거라도 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시험이 두 달 남은 시점인 9월까지도 한 달에 한 번 씩은 뮤지컬과 연극을 보러 다녔더랬다.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무대 위에 있는 내 자신을 꿈꿔보기도 했다. 무대 위에서의 그 카타르시스. 저렇게 배우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나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힘내야지! 하며 원동력을 얻곤 했다. 그리고 내가 합격해서 음악교사가 된다면 꼭 아이들을 데리고 뮤지컬이나 연극을 하고 싶었다. 아이들에게도, 아이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

### “기회가 찾아오다”

나의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나는 첫해부터 매년 뮤지컬 수업을 해왔다. 아이들이 직접 대본도 만들고 무대를 준비하여 공연까지 하는 수업이었다. 아이들도 즐거워했고 그런 아이들을 보며 나도 즐거웠지만 뭔가 부족했다. 음악실에서, 제대로 된 무대장치도 없이, 심지어 마이크도 없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열심히 뛰어다니



는 아이들은 그 노력만으로 충분히 빛났지만 그래도 뭔가, 아니 많이. 아쉬웠다. 그렇게 계속 아쉬움을 느끼고 작년 3월, 2621로 전화가 왔다. '이경이 선생님, 잠깐 내려오세요.' 솔직히 무서웠다. 두려움(?)을 가지고 내려가보니 당시 교감선생님께서 인쇄된 공문에다가 이것저것 글을 써놓으시고 밑줄을 쳐놓고 날 기다리고 계셨다. '꿈이움아트 프로젝트'라는 공문이었다. 학교 부적응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공연단체와 협력하여 함께 연극이나 뮤지컬 무대를 만들어 외부시설에서 공연까지 하는 경기도교육청 주관 프로젝트였다. 교감선생님께서서는 조심스럽게 여쭙보셨지만 난 그 공문을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네. 할게요.' 라고 대답했다. 알고 보니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미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였던 것은 뒤늦게 알았지만. 하하

## "시작되다 Grow up"

동아리 이름을 'Grow up'이라고 지었다. '성장하다.' 그래. 우리 같이 성장해보자. 무대를 함께 만들며 성장해보자. 공고문을 붙였고 모집을 시작했다.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신청을 했다.

면접과 각오를 듣고 명단을 꾸렸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바와 부합하도록, 그리고 학교의 지리적·사회적 특성상 그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지만 접할 기회가 없는 아이들로 꾸려졌다. 참으로 다양한 아이들이었다.

뮤지컬배우를 꿈꾸는 아이, 원래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음악시간에 뮤지컬수업을 하면서 뮤지컬 배우를 꿈꾸게 된 아이, 평소에 너무 조용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아이, 수업시간에 말 한마디 없이 그림만 그리는 아이, 매일 기침을 하며 선생님의 관심을 갈구하는 아이, 당시 내가 담임을 하고 있었던 담임반에서 윤OO도 지원을 했는데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시리라. 뇌 없이 해맑고 산만해서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고 늘 코를 흘리고 있는 그 아이. 코를 흘리며 마법천자문을 읽고 있는 그 아이. 내가 담임이

지만 참 의문이 들었다. '애가 제대로 할까?' '이게 뭘 하는 건지나 알고 신청은 한 걸까?' '하다가 그만 두지는 않을까?' 그렇지만 그것은 나의 큰 착각이었다.

## "우리가 성장해가던

### 푸른 여름날"

7월 무더운 여름 어느 날, 우리는 처음 동아리실에 모였다. 누가 보면 싸워서 편을 가른 것처럼 남녀가 따로 앉아서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동아리실에 둥그렇게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왜 연극반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연극반이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자신에게 학교는 어떤 의미인지.

아이들이 학교를 '감옥' '지옥'등으로 표현하였다. 마음이 아팠다. 하루 24시간 중 7~8시간 가량을 보내는 학교가 지옥같다니.

연극반 강사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소중한 존재들이야.' '너희는 사랑받아야할 존재들이야.' '너희도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색했던 아이들의 관계도 풀어졌다.

대본 리딩이 시작되었고 인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이들은 각자 저마다의 캐릭터에 마음을 주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나와 닮아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되고 싶어서.

오디션을 통해 배역을 정하는 과정이었다. 내가 앞서 말했던 나의 담임반 아이. 코짹짹이 윤OO, 주연급의 역할이었던 '찬서'를 맡고 싶다고 했다. '찬서'는 약간 허세가 있는 캐릭터다.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허세를 부린다. 좋은 동네에, 좋은 집에 사는 아이다. 가끔 웃기는 행동과 재치 있는 말로 친구들을 웃게도 하는 아이다. '찬서'랑 OO이는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건 그렇고 대본도 제대로 못 읽는 애가 무슨 주연이람? 나는 생각했다. (실제로 같은 문장도 읽을 때 마다 다르게 읽는 놀라운 재능을 지녔다. 의도한건 아니다. 그냥 진짜 글을 잘 못 읽는다.)

배역을 놓고 오디션을 보았다. 앞서 윤OO이 하고 싶어 했던 '찬서'역할은 경쟁이 치열했다. 강사선생님과 내가 함께 오디션을 진행했고 서로 배역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강사선생님께서는 이상하게 윤OO에게 마음이 간다고 하셨다. 나도 그랬다. 몇 번 나오고 안 나올 것 같던 그 아이가 연극반 시간만 되면 제일 일찍 나와 있고, 병원에 갔다가도 연극반 하러 오곤 했다. 대본을 읽을 때도 자기가 읽는 대사에 아이들이 웃으면 그렇게 수줍어하며 좋아하곤 했다. 의견이 일치했다. 그래! 윤OO에게 '찬서'역할을 맡겨보자!

각자에게 어울리는 역할이 주어졌고 연습이 시작되었다. 가끔 대본도 외워오지 않는 아이들, 시험 끝났다고 다 같이 중앙동에 나가는 아이들 때문에 열불이 터질 지경이었다. 이 공연, 과연 될까?

## "눈부시게, 아이들이 성장하다"

연습에 나오지 않아 속을 썩이던 아이들, 대본도 외워오지 않던 아이들이 눈부시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극에 몰입하고 등장인물들의 속마음을 공감했다. 가끔 아이들의 극이 완성되어가는 것을 보며 나도 소름이 돋을 때가 있었다. 공연을 앞두고는 거의 매일 늦게까지 남아 연습하는데도 아이들의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하루하루, 공연이 다가올수록 아이들도, 나도, 그리고 군자중학교 학생들도 공연을 기다렸다. 공연 당일 날, 일찍부터 안산청소년수련관으로 긴 여정을 떠난 우리. 갔더니 많은 스태프들이 무대와 음향을 설치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우와, 우와 하며 무대를 구경했다. 핀마이크도 착용하고 마이크 테스트도 하고, 분장도 받았다. 아이들은 신나했다. 리허설을 하며 학교에서는 없었던 조명과 음향, 여러 명의 스태프들이 자신들을 도와주니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나 보다. 공연시작이 한참 남았는데 군자중 아이들이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다.

200석의 공연장이 선생님들, 가족들, 친구들로 가득 찼고 공연이 시작되었다. 나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우리 모두 손을 모았다. '화이팅! 잘 하자!'를 외쳤다. 객석이 깜깜해졌다. 윤OO의 나레이션으로 공연이 시작되었다. 나는 수 십 번도 더 본 아이들의 연극이었지만 마음이 두근두근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조명 아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멋있어보였다. 아이들은 말 그대로 펄펄 날았다. 특히 '찬서'역할의 윤OO은 빛이 났다. 아니, 눈부셨다. 무대 위에서의 OO이는 더 이상 반에서 코를 흘리며 마법천자문을 읽는 아이가 아니었다. OO이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 배를 잡고 웃었고, OO이의 몸짓에 아이들은 열광했다.

아이들은 '샘~ 완전 OO이가 하드캐리 했는데요?'라고 흥분해서 외쳤다. 나는 무대를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OO이가 그토록 '찬서'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친구들 사이에서 되고 싶은 모습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어머니는 안 오셔도 반 친구들만 공연을 보러오면 된다고 했던 OO이. 거의 반 전체의 친구들이 자신을 보러 와서 누구보다 기뻐했던 OO이. 무대 위에서 OO이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으며 영화에서의 유해진급(?)의 감초역할이었다. OO이는 자신만의 '찬서'를 만들었으며 허세는 가득하지만 은근히 허당기가 있는 인기 쟁이 캐릭터로 잘 연기해주었다. 마지막에 소감을 발표하며 OO이는 울먹거렸다.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다고. 그리고, 담임인 나도 같이 울었다.





##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공연이 끝났다. 우리는 모두 울었다. 아쉬워서. 그리고 대견해서.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나는 애써 울음을 참으며 아이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어. 너희가 최고였어.’ 라고 말해주었다. 아이들은 말했다. ‘샘! 저희 이걸로 투어 다녀요!’ 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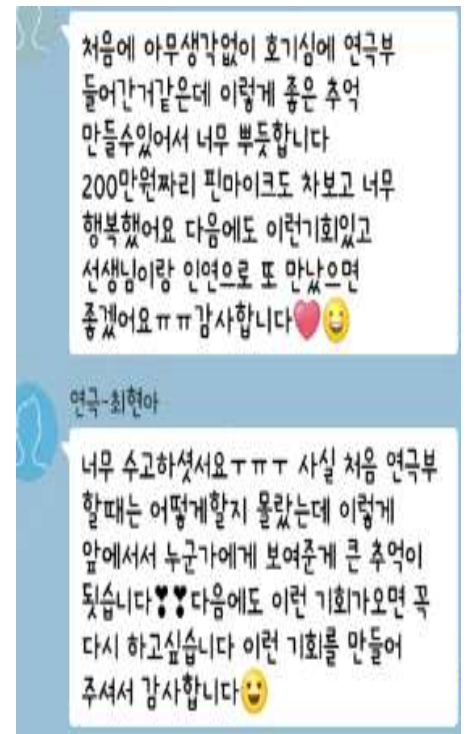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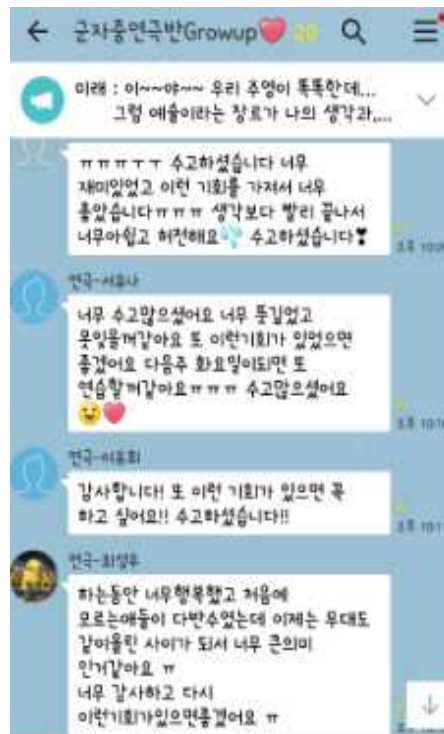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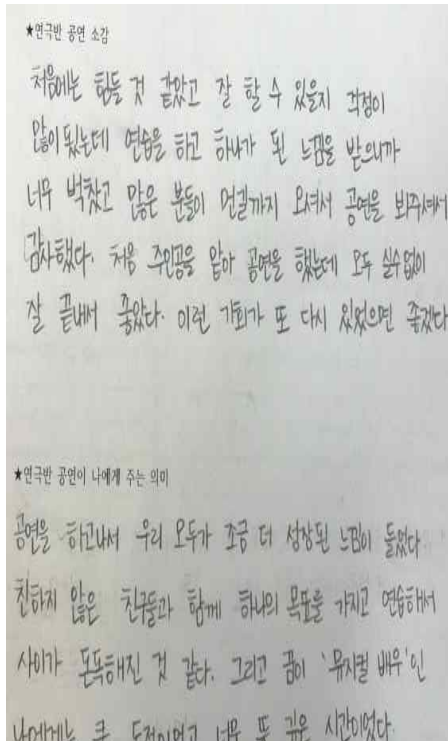
공연이 끝나고 일상에서 OO이는 다시 교실의 자기 자리로 돌아와 마법천자문을 읽기 시작했지만, OO이의 연기 이야기는 한동안 계속됐다. 아이들은 OO이를 주목했고, OO이는 수줍어하며 뒷머리를 긁적였다. 나는 한껏 밝아진 OO이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났다. 음악시간에 뮤지컬수업을 하며 뮤지컬배우를 꿈꿔 연극반에 들어온 아이는 경기예고 연극영화과에 합격했다.

아이들은 모이면 연극반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주연을 맡았던 아이는 1년 동안 가장 잘했다. 싶은 기억으로 연극반 공연을 손꼽았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우린 그 시간동안 함께 성장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가 되었다. 나에게도 그렇다.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슴 속 깊이 빛나는 별을 가지고 있다. 그 별을 찾아 맘껏 빛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사가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앞으로 계속될 우리 아이들의 무대가,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그 무대가 나는 기다려진다.



글 | 이경이(학생안전인권부)



## “군만두와 만나다”

2016년 군자중학교에 발령받으며, 그 전까지 사용했던 도덕러닝맨(도덕learningman)이란 브랜드가 매우 올드하게 느껴졌다. 이미 중학생들 사이에서 러닝맨이란 열풍이 사그라든 이후였고, 학교도 옮겼으니 브랜드네이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매체에서는 쿡방이 유행하던 터였다. 수요식회, 냉장고를 부탁해, 오늘뭐먹지, 집밥백선생 등의 요리프로그램의 돌풍은 그 해 트렌드를 대표하는 문화 중 하나였다.

'군자'는 공자가 말하는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가리킨다. 종교와도 같은 유학의 최고 성인이신 분이 꼽는 최고의 인간상이라니, 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이름인가. 나는 꼭 '군자'라는 이름이 들어간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

원래는 사군자란 이름을 쓰고 싶었다! (^.^;) 하지만 아무리 요리조리 생각해도 사군자가 주는 무게감이 너무 나의 수업스타일과 맞지 않았고, 그 외 다양한 네이밍을 고심하던 중 (여담이지만 그 때 후보로는 군계일학, 군대포, 자네군 등이 있었다) 유행하던 쿡방을 차용해 최종적으로 '군만두'(군자인들이 만들어가는 ACTION! **DO!**德)란 이름을 낙점했다.

무엇보다 '만들어가는'이 좋았다. 나는 당시 내 수업의 가장 큰 문제가 교사중심의 수업이었기에, 학생중심수업을 간절히 원하는 나의 바램을 충족해줄 수 있는 네이밍이라고 생각했다. 쿡방이라, 이제 내 수업을 들여다볼 차례였다.

## “내 수업을 들여다보다”

HOP-STEP-JUMP 가 내 수업 구조였다. 미디어를 통한 동기유발, 협동학습구조를 반영한 활동수업, 그리고 실천을 위한 전략수업 이런 식으로 패턴화된 수업을 하고 있었다.



그림1. 내 수업을 들여다보고 관찰한 빅데이터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특화하고, 잘 못 하는 것은 공부해서 배워가며 차근차근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의 청사진을 그렸다. 나의 장점은 아이들에게 친숙하고 열광하는 문화를 잘 캐치해서 수업에 반영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아이들의 삶과 연결하는 활동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 장점이었다. 단점은 교사의 개성이 강하여(?) 수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학생이 주인이라기보다는 교사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형국이란 점이였다. 5년차였을 때 요청장학을 한 적이 있는데, 내 수업을 참관하신 장학사님께서 내 수업을 배움중심수업이 아닌 교사중심수업이라고 하셨다. 그 후로 나는 배움중심수업을 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으로 교사중심수업을 한다는 데 대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다. 그것을 수정하고자 당시 근무하던 학교의 교감, 교장선생님께 수업장학을 요청드렸는데 내 수업의 문제가 수업디자인보다는 목소리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하셨다. 목소리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편안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였다.

교사중심수업을 하는 목소리가 나쁜 교사라는 단점에만 집중하면 더욱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 내가 잘하는 것은 아이들의 특성과 문화를 잘 캐치하고 간파하는 것이니, 여기에 해답이 있을 것 같았다.

그리하여 나는 아이들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하여 수업을 기획하되, 내가 잘 하는 요소들을 반영하고, 내가 주도할 때와 아이들이 주도할 때를 적절히 배분하게 수업을 디자인하자라고 다짐했다.



그림2. 학생들을 관찰한 빅데이터

## “우리 아이들을 들여다보다”

그리고 아이들을 들여다봤다. 오랫동안 가만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 아이들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 가지로 규정할 순 없지만, 범주화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소위, 관중으로 불리우는 애정결핍의 아이들은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랩으로 발설하는 데 매력을 느끼며 힙합에 열광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관중-힙합-SNS는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한다는 욕구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아이들은 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쌓여 아날로그를 경험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라 디지털에 열광한다. 유튜브와 함께 성장해 온 아이들은 ‘건너뛰기’ 문화를 거쳤으므로 진지하고 지루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질 못한다. 디지털에선 언제나 ‘건너뛰기’가 가능하므로 오직 모든 현상을 노잼 아니면 핵잼으로 분류하며 오직 재미만을 추구하고, 자칫 진지한 이야기라도 할라치면 손사래를 치며 진지충으로 몰아세운다.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엔 매우 적극적이다. 수학여행, 축제, 체육대회 등의 각종 행사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연습을 하고, 체육대회 반티 정하는 것을 너무 중요히 여긴다. 각종 행사에서 무대에 서는 것, 체육대회 반티와 화장, 각종 액세서리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아이들. 그렇다. 이 아이들은 언제나 삶의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이 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

<대통령의 글쓰기>의 저자 강원국씨는 모든 독자에게 관중으로 살라고 말한다.<sup>1)</sup> 관중이란 남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면서 산다는 것이고,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면 끊임없이 자기를 성장시키고 성장된 나를 표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관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며 세상의 중심에 자신이 있길 바라는 관중 아이들은 오히려 자기성장을 위한 잠재적 씨앗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1) 2018 GMC 강연 <관중으로 산다는 것>에서 발췌.



아이들은 잘 배운 멋진 어른이 되어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삶을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삶의 기본이다. 올 해 중학교 1학년의 도덕교과서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타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 다른 사람에게 점점 의존하게 되므로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도덕적인 삶이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해** 옳은 행동을 실천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삶이다.”

4차산업혁명이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미래교육은 학생들에게 개념적지식이 아닌 상황과 맥락에 적합한 절차적, 방법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렇게 적재적소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사람을 우린 '역량'있는 사람으로 지칭하며, 2015개정교육과정에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핵심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지칭했다.

삶에 있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민하게 문제를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자신의 주체성, 주도성을 갖춘 사람일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내 수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다시 말해 미래사회에서 '관중'에서 '주인공'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았다.

## “아이들의 특성과 문화 + 기존의 내 수업 + 쿡방”

미래사회의 역량있는 아이들로 자라기 위해서 스스로 주도하고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고민했다. 먼저는 DOD 도덕모니터링단을 조직했다.



특히 선정된 군만두스텝이 된 아이들은 도덕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정예멤버이다. 이들은 분기별로 도덕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고, 최신 아이들의 유행과 좋아하는 경향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 수업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작년에 윤독도서(스프링백)를 읽고 하브루타 수업을 처음 도입했을 때 이 아이들은 딱 이렇게 표현했다. “선생님! 이 수업 진짜 핵노잼이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아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이미 이 수업이 폭망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아이들의 판단력은 예리하고 날카롭다.

패턴화된 내 수업을 5가지의 요리로 조직했다. 사이다, 미더덕, 레알액션모듬정식, 튀김, 훈내폴폴<sup>2)</sup>이 그것인데,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기를 욕망하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활동하고 발표하며 수업의 주인의 자리에 서도록 만든 것이 **레알액션모듬정식**이란 모듬 및 주제활동 수업시간이다. 사회적 이슈와 도덕적 문제에 민감한 아이들을 위해 주제와 적절한 최신 뉴스를 연계하는 것이 **사이다**이다. 디지털에 열광하며 미디어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만든 것이 수업 주제와 관련된 영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미더덕**이다. 실용적 배움을 좋아하며 멋진 배움을 갈구하는 아이들을 위해 도덕적 딜레마를 통한 점핑과제를 만든 것이 **튀김**이며, 뭐든 꽃힌 것은 적극 실천하는 아이들을 위해 **훈내폴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군만두 수업은 패턴화된 5가지의 요리에 성찰일기를 더한 수업이며, 기존에 내가 하던 수업 중 내가 잘 하는 것에 집중하며, 아이들의 특성과 문화적 특징을 결합하여, 유행하는 쿡방의 요리이름으로 조직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군자중(배움의 주체가 될 아이들)+만들어가는(배움의 과정)+ACTION DO! 덕(德)(배움의 결과)**이 되겠다.

2) 사이다는 사진으로 이해하는 세상, 미더덕은 미디어로 더 도덕하기, 레알액션모듬정식은 실제 행동으로 배우는 활동중심 모듬활동, 튀김은 튀어오르는 생각 도덕 되새김, 훈내폴폴은 훈훈하게 실천하여 향기를 낸다의 약어이다.





멋지고 매력적인 일이지만 그만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것 같다. 내가 원했던 만큼의 배움이 도달하지 못했거나 아이들의 반응이 신통찮을 때, 또 아이들이 반응 이전에 내가 먼저 내 수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나는 심하게 좌절하기도 하고 울적해진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아이들 반응이 고갈되었을 때도 우울감을 느낀다.

그런데 또 한 번 수업이 잘 맞아떨어지는 경험! (이건 교사라면 누구나 하는 경험) 아이들 스스로가 배움을 주고받는 상황을 마주하면 가슴이 벅차도록 기쁘고 감격스럽기도 하다.



## “ 역량있는 교사의 삶이 먼저 ”

원점으로 가보자.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기에, 결국 아이들이 아닌 나를 먼저 생각해볼 수 없었다. 역량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역량있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끊임없이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그렇지만 아직 너무 어렵다. 솔직히 나는 여전히 두렵고, 자신 없고 무섭고 때론 지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도 마음을 다 잡을 수밖에. 왜냐하면 나는 교사니까. 교사인 이상 수업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고로! 오늘도 나는 수업준비를 한다. 끝도 없는 항해를 시작한다.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다잡는다. 누구나 그러는거야. 괜찮아 다독이며 생각한다. 다음 주 군만두는 또 어떻게 요리하나?



## #수업태그 수업에 대한 철학을 세워가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하는지도 느낀다. 수업 내의 교과역량 함양을 위해 모인 두 번째 시간, 우리는 어떤 수업을 했는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았다.

4월 23일 #수업태그 두 번째 모임에서는 교과, 배움, 학생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하여 같이 나누어보았다.

### “내 교과는 왜 배워야 하는가”

**김소라** 미술교과가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보았어요. 첫째는 창의력과 상상력입니다. 미래 대비역량을 중요시하는 현재는 정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창의력과 상상력의 신장은 미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두 번째는 개성을 찾는 것입니다. 개성시대라고 하지만 남들을 따라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요. 나만의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자신의 트렌드를 찾기 위해서는 ‘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미술이 필요합니다.

**이경이** 음악교과의 교육과정 목표는 음악적 정서 함양 및 표현력 계발을 통해 자기 표현 능력을 신장하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생각지 못한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요. 음악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태도를 배워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이정은**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도덕적으로 공감하고,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휩싸이지 않는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도덕을 배워야 필요합니다.

**박민영** 과학은 ?를 !로 바꾸는 교과입니다. ‘왜 이러지?’에서 ‘아, 그렇구나!’로 바꾸고, ‘그럼 이건 왜 그러지?’라는 또 다른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과학을 배우다 보면 이렇게 학생들이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나연** 우리의 것을 지키기 알리기 위해서 영어는 배워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한글을 알릴 때에도,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소개를 할 때에도 영어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문화를 그대로 지키고 알릴 수 있습니다.





**신수영** 한문은 사골처럼 우려내야해요. 한자의 뜻을 알고 배우다보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휘에 대해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지므로 글에 대한 이해력이 증진합니다.

**김초은** 작품을 만드는 것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어요. 따라서 자기표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병맛 같은(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수업을 하는데 사물하고 대화를 한 후에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커튼이라든지 책상 등 사물과 대화를 한 후에 그림을 그려보면 그냥 그려보는 것 더 풍부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봄으로써 공감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지인** 논리적인 생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학을 배워야합니다. '수학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을 주제로 마인드맵을 그려보고 우리는 어디에 도착하는지 생각을 하도록 해보았습니다. 수학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원시시대로 돌아간다는 결과 등 학생들이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서 결론을 잘 도출해냈어요. 또한 수학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도 수학하고 연관되어있거든요.

**정송희**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나가도록 하고, 역사의 내재적인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너무 어려운가요? 저는 학생들에게 '오늘의 네가 내일의 너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역사적으로 상상하도록 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배워야합니다.

## “배움이란 무엇인가”

**김소라** 『교육콘서트』를 보면 배움이란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채우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과 연계해서 마음으로 깨우치도록 하는 것, 무언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나연** 의미가 생긴다면 그것이 배움이에요. 어떤 의미가 학생의 마음에 부여된다면 배움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신수영** 실생활과 접목된다면 배움이라 생각해요. 배운 것이 내 생활에 베어 나올 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이정은** 미래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나가야해요.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죠. 진리는 없고 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사고를 키워 나가는 것이 배움이에요.

**정지인** 어떠한 것이 왜 그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등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박민영** 학생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관심이 없다면, 아는 것이 없다면 의문을 안생길거예요.

**이경이** 가르칠 때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탐구하고 깨우칠 때 비로소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김초은** 학습과 배움의 차이를 생각해봤어요. 학습은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심동적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배움은 삶과 자기 자신과 연관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 이해 등 말이죠.

## “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가”

**박민영** 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의자를 봐도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작은 호기심이요. 하지만 우선 예의를 갖춘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지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학은 수준이 다양해서 서로 도와주도록 하는 수업을 많이 해요. 모르는 것은 저보다는 짝궁에게 물어보거나 뽀기로 서로 설명해서 사인 받아오는 수업 방법을 이용하면 좋더라고요.

**김초은**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에도 공감하고 이해하는 세심한 사람이요.

**김소라**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심미적 감성을 가진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일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나연** 참을성이 있는 학생이 되었으면 해요. 자신과 생각이 달라도 참을성을 가지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정승희** 스스로 결정하고 사고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이요.

**신수영** 저도 공감할 수 있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감능력이 갖춰진 후 교과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 옆에 있는 친구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교과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정은**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의 말 중에 훌륭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자신만의 별을 찾는 사람, 다른 사람의 별을 찾아주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바로 교사의 기본적인 역량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꿈꾸는 아이들의 모습이 평상시에 그 선생님을 보면 떠오르던 모습이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모두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의 철학을 세웠다. 풍성한 나눔이 있어, 다음 달 모임이 더욱 기다려진다.



글 | 박민영(정보과학부)



## 일정교사의 수업개선 고군분투기

### 내가 불붙지 않으면 개선은 없다.

일정연수를 시작하며 3월 30일 첫 모임에서는 자신의 2018년 평가계획일정연수 기대를 많이 했다.(무슨 기대를 그렇게 했었을까) 새로운 자극, 새로운 인연, 새로운 환경. 기대를 너무 과하게 했을까, 대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이 일정연수생들의 반이상이어서 학과생활로 회귀한 기분 때문이었을까. 기대를 충족했던 연수는 아니었다. (임용고사도 기대를 충족시키는 시험이 아니었지만..) 일정연수를 마치고 학교에 돌아온 후 많이 하게 된 생각은, 내가 불붙지 않으면 개선은 없다는 거다. 일정연수 끝났다. 수업, 45분 보내면 끝난다. 평가? 과제특 쓰면 방학한다. 이렇게 매 학기를 보내고 또 다시 일년을 시작하려니 기운이 빠지고 나른한 느낌이 있었다.

### 어렵게 내 본 용기

그랬던 나에게 2017년 새로운 자극이 될만한 제의가 있었다. 대학교 동기가 '대학교 논문 주제로 수석교사를 통해 수업 개선해가는 과정을 논문으로 쓸 건데 대상자가 되어주지않겠냐고.' 조심스러운 요청이었다. (두 번 거절당하고 나에게 연락한 거라는 후문이 있었다.) 하루 정도 고민을 하다가 나도 필요했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답신을 했고, 그렇게 수업컨설팅은 시작되었다.

친구가 학교에 와서 수업을 보고 학생들의 노트를 보고 학생과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았다. 보는 걸로는 분석이 어렵다며 친구가 다시 학교에 와서 수업을 녹화해갔다. 녹화한 영상을 같이 보며 수석교사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문제를 두 개 정도 뽑아보았다. '핵심질문 만들기가 어려워요. 학생들 동기유발할 수 있는 자료 만들기, 고전과 현대와의 교차점 찾는 수업 하고 싶어요.' 친구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로 얘기를 나누고 수석교사 선생님께 학교로 컨설팅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두려웠다. 친구가 보는 수업도 이미 충분히 부끄러운데, 별거벗겨져서 칼날 앞에 서 있는 기분.

### 나한테 맞는 수업을 찾아야지

수석교사 선생님의 난타가 시작되었다. '도입이 너무 길어요, 수업이랑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는 짧게 잘라요, 전시학습 효과적이고 임팩트있게 환기할 방법이 있을텐데, 학습지를 만드는 건 어때? 노트정리가 잘

안되는 거 같은데 ...' 하나하나 다 적었다. 부끄럽지만 이왕 드러낸 속살이니 구석구석 연고를 발라보자는 오기가 생겼다. '그럼 돌발상황에는 어떻게 해요' '모둠수업이 어려워요.' '모둠수업이라고 좋은 건 아니지. 나한테 맞는 수업을 찾아야지. 강의식도 잘 맞는 옷으로 조직하면 좋아.' 한문 수업 질문에 피드백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에 숨통이 트였다. 선생님께서 과제를 주셨다. '다음 컨설팅까지 학습지 만들어봐.' 막막한 나에게 선생님이 만든 학습지 한 장을 예시로 주셨다. 이 학습지 한 장에 갈피가 잡히는 것 같다가도 다시 막막해졌다. 그러던 중 새롭게 받게 된 좋은 자극이 된 초록책.

군자중에서 백워드교육과정 설계 연수가 시작된 것이었다. 윤지영선생님께서 과목별로 계획한 백워드지도안을 첨삭해주신 게 수업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상황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핵심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 한 과 한 과 핵심질문을 뽑고 핵심질문을 피크로 삼아 올라가는 과정을 도입 학습지로, 내려가는 과정을 정리학습지로 만들었다. 만든 학습지를 수업에서 바로 활용했다. 2017년 바로 만들고 적용할 때는 조금 힘들었다. 2018년 2015개정 교육과정으로 교과서가 바뀌었고 새 교과서로 새롭게 시작해보자 마음먹고 학습지를 만들었다. 한 번 만들어 본 데서 수정, 보완한다는 기분으로 제작해서 그런지 처음 만든 학습지보다 발문이 촘촘했고 재미요소도 있었다. 지금도 개선, 시행착오에 부딪는 과정에 있다. 개선, 시행, 개선, 시행 ... 되었다, 싶다가도 다시 보면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보인다. 一步一步

### 교사의 노력이 답이야

수업연구의 족적이 남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수업연구의 족적이 남도록 신경을 쓰고 싶다. 정신없이 하루를 흘려보내면 농친 것들에 대한 후회가 따끔하게 든다. 이 후회의 빈도가 드물어질 청량감있는 수업을 만들고 싶다. 요즘 시간이 내게 중얼거려주는 답은 한결 같다. '교사의 노력이 답이야.', 수석교사 선생님 말씀이 귓가에 맴돈다. 水滴穿石(수적천석). 딱딱딱딱, 떨어지는 낙숫물에 바위 구멍 생기듯, 놓지않고 거북이 걸음하며 내게도 사이다 같은 ... 苦尽甘来(고진감래)를 기대한다♥

글 | 신수영(교육연구부)

## 군자중 교직원동아리, 이곳에 주목하라

### 힐링테라피

#### 전문상담가 모시고 학생상담을 위한 배움의 시간 마련



힐링테라피 동아리회장인 김남경 선생님께서 직접 사오신 꽃을 나눠가지며 마무리되었는데, 다음 모임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플라워 박스를 만들어 본다고 하니 듣는 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3월 새학기를 맞습니다. 다소 지쳤던 지난 해 기억을 잊고, 새로운 다짐으로 의욕이 충만해 있습니다. 이런 교사의 마음도 모르고 3월부터 학생들은 크고 작은 사건들로 교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데요. 교사의 적절한 상담과 조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힐링테라피 동아리에서는 전문상담가 고서현(레인보우 심리상담연구소 상담소장) 선생님을 모시고 학생상담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있었던 상담사례를 듣고, 이후 현재 우리학교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상담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 #수업태그

#### 우리의 열정으로 교과역량을 수업에 녹여낸다.



교과역량함양에 관심있는 열정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수업태그 동아리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모여 자신의 수업사례를 나누고, 1인 1역할을 통해 연구학교 자료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3월 30일 첫 모임에서는 자신의 2018년 평가계획

을 통해 교과역량을 어떻게 수업에 녹여내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어떻게 교과역량을 녹여 실제로 수업을 했는지 나눠볼 예정입니다.

또 <2018년 내가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 박살내기, 학급친구들과 특별한 추억 만들기, 돈 모으기, 춤바람 등 다양한 이야기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될 #수업태그 동아리. 지금보다 1년 후가 더 기대되는 멋진 그들입니다.

### 보디빌딩



#### 최고의 생활지도를 위해

#### 나를 단련한다!!!

살은 안 빠지고 머리만 빠졌다는 전직 보디빌더 김현철 선생님과 함께하는 보디빌딩 동아리는 지난 3월 30일 체력단련실에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A, B조로 나누어 그룹PT를 하고, 체력단련실에 있는 기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배우며 몸을 단련했다고 하는데요. 전문적인 트레이닝 시간으로 몸짱이 되어가는 그들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 배드민턴



일상 업무 및 수업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셔틀콕과 함께 다 날려버리고 건강한 학교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는 배드민턴 동아리의 활동 모습입니다.

### 힐링탁구



우리 학교 교직원 동아리의 자라는 교사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를 위해 애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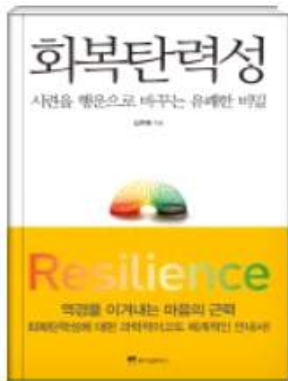
모두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힐링탁구 동아리는 특히 행정실 가족이 많이 속해 있는 동아리로, 탁구를 통해 군자가족 화합의 핵심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 | 김소라(혁신교육부)

## 책

## 회복탄력성



김주환저  
위즈덤하우스  
2011.03.17.

토요일 밤 이 책을 집어들었다가 단숨에 읽어버렸다. 이 책은 무거워보이는 이름과는 달리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이 책은 세상의 모든 교사와 부모가 읽으면 좋겠다. 느껴지는 바가 많다. 하와이의 카우아이섬에서 1955년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한 40년의 종단연구를 했다. 가난하고 불행해보이는 가정에서 태어나 결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은 작은 섬의 힘든 환경 속 아이들이 이토록 불행한 환경에서 불행하게 될 이야기를 연구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모두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었다. 1/3정도의 아이들은 연구자들의 예상을 뒤엎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그 원인을 찾던 연구자가 내린 결론이 의미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곳곳이 제대로 성장해나가는 힘을 발휘한 이 1/3 아이들에게는 예외없이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회복탄력성의 골자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존중감을 길러 타인을 배려하고 제대로 된 인간 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복탄력성의 근본임을 시사해준다.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 내몰려있는 우리 아이들이 많음을 보면, 우리가 그러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의 결과가 울림을 준다. 위의 사례 외에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례가 많아 다양한 수업 예화로 사용할 수 있다.

## 책

## 나의 첫 젠더수업



김고연주저  
창비  
2017.11.10.

이 책을 처음 만나고, 나는 아arki데메스가 된 기분으로 '유레카'를 외쳤다. 7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에는 한 챕터마다 수업에서 써먹을 수 있는 주제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문고인데 시시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글썽? 읽어보시고 얘기해보시라!

자신의 아이가 자라면 읽어주고 싶은 책으로 저술했다는 작가의 말이 공감한다. 나는 이 책을 읽고, 후에 쌍둥이(저의 아이들입니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 책을 꼭 읽게 해야겠단 다짐을 했으니까 말이다.

이 책은 인권이니, 존중이니 하는 강의식수업보다 낫다. 이 책을 읽고나면 자연스레 한 사람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봐 줄 수 있는 눈이 한 뼘은 자라는 것 같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어쩔 이렇게 부족한 엄마일까. 도대체 나는 왜 모성애가 없을까 하며 스스로 자책하는 나처럼 부족한 엄마 사람에게 뜻하지 않게 위로와 감동도 준다. 위대한 모성애의 신화는 원래 날 적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책에서 가장 감동했던 포인트였다.

모든 사람에게 꼭 추천!



## 영화

## 땀뽀걸즈



영화 포스터만큼이나 시종일관 밝은 이 영화는 kbs스페셜의 다큐로 제작된 것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8명의 땀뽀(댄스스포츠동아리)아이들에게는 우리 학교의 아이들처럼 저마다의 다른 삶의 이야기가 있다. 삶을 배제한 채 아이들의 행위만을 재단하는 나를 반성케 하는 영화였다. 고로 가벼운 마음으로 틀었다가 가슴에 묵직한 울림을 경험할 수 있다.

영화 속 이규호선생님을 보며 나 자신을 반성했다. 영화 속 선생님은 후배선생님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승진? 우리 승진할라고 교사한 거 아니제? ... 애들 잘 가르쳐서 사람 되게 만들어갖고 졸업시켜주는게 우리 임무 아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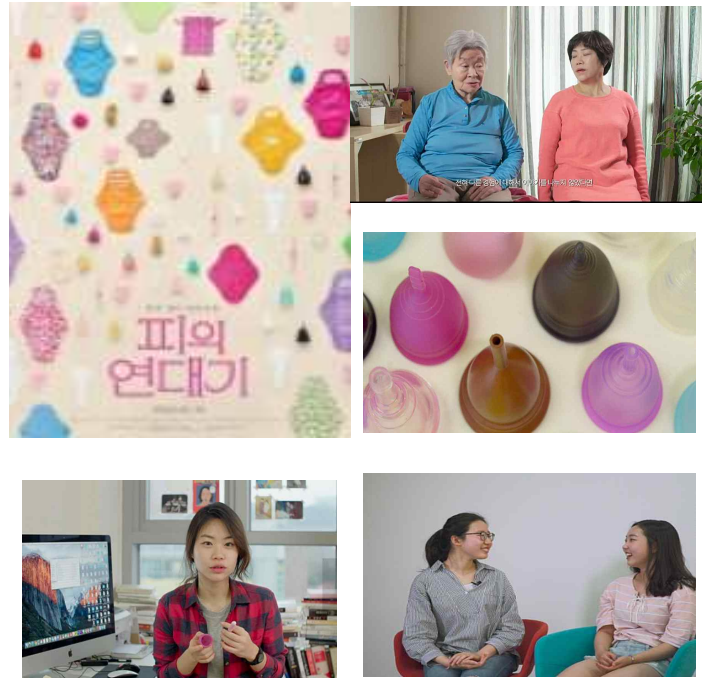
영화를 보면, 이규호 선생님이 땀뽀 아이들과의 관계가 기계적이고 업무적으로 아이들을 대했던 내 모습을 반성케 했다.

영화 속 등장하는 모든 아이들의 사연이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그와 반대로 아이들의 열정은 빛나고 아이들의 웃음은 티없이 맑고 밝다.

아이들과 수업시간에 함께 보고 다양한 주제로 토의해봐도 좋을 영화이다.

## 영화

## 피의 연대기



무시무시한 제목과는 달리 경쾌한 다큐이다. 다만, 우리에게 매우 생소하고 낯선 <생리>에 관한 다큐라는 것!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인류의 여성들의 고통을 나는 이 영화를 통해 처음으로 인식했다. 성실한 취재를 바탕으로 한 경쾌한 속도감과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방식, 무거운 주제를 파스텔톤으로 발랄하게 풀어내는 서사, 무엇보다 등장인물들이 시종일관 밝아 보는 내내 기분이 좋아진다.

김보람 감독을 보며, 나 역시 한 교실수업을 디자인하고 디렉팅하는 연출가(?)로서 자신의 엄마와 할머니와 이모들까지 섭외해서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탁월함과 그 재기 발랄한 연출력에 매료되었다.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 영화 속 내용을 짧게 편집해서 사용하면 멋지고 힙하게 동기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여자선생님들이 여자친구들끼리 우르르 보고 나와서 커피와 함께 수다를 떨기에 아주 적합하다. 그러나 남자들이 더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램이다. ^\_ ^



발행일 2018년 4월 30일  
발행처 역량기반수업연구회(#수업태그)  
발행인 군자중학교장 박용국  
편 집 군자중학교 혁신교육부  
기 획 역량기반수업연구회(#수업태그)